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지역 피해자 13명 최초 공개

13일 전일빌딩245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사례 발표
조선대 산학협력단, 구술자료 등 수집...공장 근무 중 집단 동원

광주시가 ‘기림의 날’을 맞아 지역 위안부 피해 사례를 발굴해 공개한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던 광주지역 위안부 피해 12명의 사례를 새롭게 확인하고, 광주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집단 동원 거점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5시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지역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이는 그동안 ‘기림의 날’ 행사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광주시가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현황 자료화 사업을 추진한 성과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조선대 산학협력단(공공역사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광주와 연관된 피해자 13명의 구술자료와 동원 경로 등이 발굴됐다.

광주·전남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고(故) 곽에남 할머니 이 외에도 12명의 피해자 사례를 발굴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굴된 최복에 할머니는 광주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남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를 거쳐 관련 연락선에 몸을 실었다. 최 할머니는 남태평양 마나탄 섬 팔라우에서 고초를 겪었다. 광주 제사공장(실 뽕는 공장)이나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중국으로 집단 동원돼 일본군 위안부를 강요당한 사례는 최 할머니 외에도 3명이 더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광주에서 공장 근무 중 일제의 조직적 연행에 의해 동원됐다는 점이다.

광주제사공장, 방직공장, 솜 타는 공장 등에서 일하던 곽근남, 진화순, 최영삼 할머니 등은 1930~1940년대에 ‘집단 동원’ 형식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의 일본군 위안소로 보내졌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하순녀 할머니는 전남에서 상경해 광주에서 취업 사기에 말려 위안소에 동원됐다.

광주는 인근 농촌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공장 등을 통해 동원되거나 동원 전 모이는 중간 집결지

인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는 인근 농촌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모이는 중간 집결지 역할을 했으며, 업자들이 광주에서 여성들을 모아 한꺼번에 해외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실제 강진에서 동원된 김태선(가명) 할머니도 1944년 광주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광주역에서 호남선 기차 화물칸에 올랐다. 그는 동남아시아 미얀마(옛 버마)에서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다. 팔렘방 위안소 명단, 버마 포로신문 보고서 등 해외 자료에서도 광주 출신 여성들의 이름이 확인됐지만, 일부는 여성가족부 피해자 명단에조차 등록되지 않아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1938년부터 1944년 사이에 ‘공출’ 관련 유언비어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 7건도 발굴됐다.

해당 판결문은 ‘일제가 어린 소녀나 과부를 전쟁터로 보낸다’는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 되레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했던 기록으로, 당시 여성들이 느꼈던 공포와 억압적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올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전일빌딩에서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를 주제로 기림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이정선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우리가 몰랐던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강연을 펼치고 ‘AI로 복원된 소녀들’이라는 주제영상도 상영된다. 광주지역 피해자 4명의 생전 사진을 토대로 한 영상물도 공개된다.

5개 자치구도 12일 북구를 시작으로, 14일 동구·서구·남구·광산구가 기림의 날을 기념하는 전시, 공연, 인권평화축제 등 개별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고자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현재 정부 등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6명이며, 광주 등록자였던 곽에남 할머니는 지난 2019년 3월 별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 尹 체포 또 무산...“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특검팀, 적법한 집행 신경전 격화
영장기한 만료...재청구·기소 갈림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조사와 체포에 모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까지인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다시 구인을 시도할지 아니면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지 갈림길에 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만

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출정과정 방에 불러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교도관 10여명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그대로 들어서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완강하게 거부하니깐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고 그 의자에 앉은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허리과 팔의 통증을 호소했고,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해 의무실도 찾았다.

법률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사람을 케이지(cage-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 특검이 와서 때리고 저 특검이 와서 때린다”며 “전직 대통령인데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수용자와 잠범에게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회견 1시간여 뒤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다.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 비브리�균 검출률 증가...감염 주의보

광주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병원성 비브리오팀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비브리오팀 검출률은 1~4월 2.2%(1건 검출·45건 검사), 5월 6.3%(1건 검출·16건 검사), 6월 17.7%(3건 검출·17건 검사), 7월 26.9%(7건 검출·26건 검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시료는 주로 수족관수와 손질되지 않은 패류에서 확인됐다. 생식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서는 병원성 비브리오팀이 검출되지 않았다.

비브리오팀에 감염되면 발열·오한·설사·복통·구

토 등 장염 증상은 물론 상처 감염 땀 부종·발적·수포가 나타날 수 있다.

만성간질환자, 당뇨 환자 등 면역 저하자는 패혈증이나 쇼크 등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육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연중 시기별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팀(비브리오패혈균, 비브리오패혈균, 장염비브리오팀)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6~9월)에는 생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위드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뉴케이아이(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5년 08월 07일 각 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의하여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이하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회사의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5년 8월 8일
"갑" 주식회사 위드종합건설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3, 603호
(구로동, 선경오피스텔)
대표이사 유종태
"을" 주식회사 뉴케이아이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8층 807-784호
대표이사 양희철

분할합병공고
2025년 8월 7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창해전기 (이하 "갑")와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주식회사 이엔엠테크(이하 "을")와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부문의 권리와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의하여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이하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에게서도 동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갑" 주식회사 창해전기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4, 3층
대표이사 황성진
"을" 주식회사 이엔엠테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종로15번길 23, 6층 (일산동, 아인원23)
대표이사 홍정구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매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취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3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특가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